

무더위 속 유익한 정보 충전·궁금증 풀어볼까

CULTURE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8월 끝자락 알찬 행사·프로그램 잇따라 진행

‘옛 전남도청 운영방안 모색’ 포럼 20일 DJ센터 이인성 작가탐방, 예술공간 집서 주황색 점 탐색 한국화 명작전 연계 런치토크 27일 시립미술관

무더위 속 8월 끝자락 알찬 문화예술행사를 찾아 유익하게 정보를 채워보거나 궁금증을 풀어보는 것은 어떨까.

평소 유명 전시회나 음악회를 많이 다니다보면 작품들 중심으로 이해하고 끝나는 아쉬움이 있다. 그 부대행사 등에 자신만의 부족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거나 인문학적 소양을 충전할 수 있는 답안이 숨겨져 있을 수 있음에도 말이다.

의외의 답이 의외의 행사나 프로그램 안에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다. 더위가 한풀 꺾이기를 소망하면서 작품을 감상만 하지 말고, 그 연계행사들이나 지속적 현안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행차를 해 보면 어떨까 싶다.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거나 궁금한 점을 해소해보면 좋을 듯하다.

눈에 띄는 행사는 광주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옛 전남도청의 일면을 다룰 포럼이다.

옛 전남도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재조명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옛 전남도청 운영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회장 류재한)의 제28차 문화도시 이슈포럼이 그것이다. 이 이슈포럼은 20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에서 지역 문화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관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린다.

기조발제에는 류재한 회장이 나서 운영 주제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접 운영, 문제부 산하 별도 조직 신설, 특수법인 설립, 문화재단 내 별도 본부)를 분석하고 역사성 계승과 효율성, 독립성 측면에서 장단점을 제시한다.

이와함께 종합 토론은 정성구 지원포럼 도시환경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고, ‘옛 전남도청 복원 이후의 운영 주체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결정해야’(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 ‘조직 구조를 중심으로 한 옛 전남도청 운영주체 이슈 검



8월 끝자락 유익하게 정보를 채워보거나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는 알찬 문화예술행사가 잇따라 마련된다. 사진은 지난 7월 30일 열린 광주시립미술관의 ‘남도 한국화 명작전 연계토크’ 강좌 모습.

토’(정경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전당 차원의 일원화된 유기적 운영이 필요하다’(박형주 광주청소년살다디자인센터장), ‘옛 전남도청의 운영방안 모색에 대한 의견’(홍성철 광주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등 순으로 토론이 이어지며, 각자의 시각에서 현실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민주주의 정신 계승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 4시 예술공간 집(대표 문화회)으로 이동하면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두각을 보이고 있는 청년 작가의 작품세계를 공유할 수 있다.

(제) 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윤범모)가 매년 주기적으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들과 시민들이 전시공간에서 직접 만나 작가의

작품 세계를 공유하기 위해 열고 있는 ‘GB 작가탐방’이 그것이다.

이번 ‘GB 작가탐방’은 올해 여섯번째 순서로 삶 속에서 마주하는 인상적인 장면들을 주요 소재로 삼아 작업해온 이인성 작가편이다. 광주미술상을 비롯해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하정웅청년작가상 등 지역에서 내로라할만한 상을 두루 수상한 이 작가의 작업은 익숙한 장면 혹은 언젠가 마주하게 될 것 같은 장면을 화면에 옮기고 시각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감정과 의미를 주황색 점으로 재구성하는 점이 큰 특징이다.

그를 상징하는 것은 평범한 풍경에 던져진 주황색 점이다. 이 주황색 점은 장면을 낚설고도 의문스럽게 만드는 장치이자 각자의 경험과 기억을 상징

하는 메타포로 기능하고 있다. 이번 작가탐방은 감정과 풍경, 삶의 아이러니를 화면 위에서 어떻게 구조화하고 그려내는지, 동시대 회화의 새로운 가능성과 감각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는 프라이머리 프랙티스(Primary Practice, PP)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우 큐레이터가 맡는다.

이어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이 ‘마음, 예술가의 혼을 담은 한국화’라는 타이틀로 마련해 오는 27일 낮 12시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 남도 한국화 명작전 연계 런치토크 특강이다. 이 특강은 남도 한국화 명작전 내용에 맞춰 모처럼 남종 문인화의 세계와 호남 남종화를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안성맞춤이다. 더욱이 이 강좌에 제일 결맞을 인물 중 한명으로 문인화와 남도 한국화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선옥 관장(광주의제미술관)이 강연을 맡았기 때문이다.

강연을 맡은 이선옥 관장은 서울대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미술사로 석사학위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조선시대 매화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의재 허백련을 비롯한 호남 한국화단과 문인들의 마음을 담은 그림이나 문인들의 사회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전시와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날 강연은 깊이있는 문인화와 남종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시립미술관에서는 남도 한국화 명품전(5.13~9.7.5. 6전시실)이 열리고 있으니 전시회가 지 반드시 챙겨 볼 것을 권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모차르트 탐험 일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이하 ‘전당재단’)은 오는 10월 23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2025 ACC 슈퍼클래식’ 두 번째 무대로 ‘백건우와 모차르트’ 공연을 진행한다.

아시아문화전당재단, 10월 23일 ACC 극장2
생애 첫 모차르트 앨범 발매 기념 전국 공연

이번 무대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생애 첫 모차르트 앨범 발매를 기념한 전국 순회 공연인 ‘모차르트-프로그램 II’의 하나로 마련됐다.

올해로 피아니스트 데뷔 69주년을 맞은 백건우는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수차례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서 활약해 온 대표적인 거장이다. 일

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매일 피아노 연습과 연구를 지속하며 새로운 음악에도 도전하는 그는 ‘건반 위의 구도자’로 불린다.

피아니스트 백건우는 이번 공연에서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피아노 소나타 10번, 12번, 16번을 비롯해 ‘론도’와 ‘환상곡’처럼 대중에게 익숙한 곡들을 선보인다.

또 ‘글라스 하모니카를 위한 아다지오’, ‘작은 장례 행진곡’ 등 숨겨진 명곡들이 한데 어우러진 풍성한 프로그램을 들려준다.

모차르트의 전 생애를 아우르며 그의 음악과 인생을 깊이 살피고 연구하는 백건우는 이번 공연에서 자신의 69년 음악 인생을 투영한 ‘모차르트 탐험의 완결판’을 무대 위에 풀어낼 예정이다.

입장료는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가수 선, 광복절 기념 81.5km 완주...23억여원 기부

기부 달리기에 1만9450명 참여...독립유공자 후손 집 짓기에 쓰여

가수 선이 지난 15일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기부 마라톤 ‘2025 815런’을 열고, 81.5km 마라톤 완주에 성공했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17일 밝혔다.

선은 이를 통해 조성한 23억원의 기부금을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한국해비타트에 전액 기부했다.

‘2025 815런’은 광복절의 의미와 독립유공자에 대해 감사함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기부 마라톤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 인원인 1만9450명의 개인 참가자가 24일 만에 모집됐다.

선은 무더위 아래에서도 7시간50분22초에 81.5km를 완주했다. 오프라인 참가자 4000명이 서울 월드컵 공원에서 선과 함께 달렸고, 선과 소환이 참여한 특별 콘서트도 진행됐다.

노스페이스·미라클365 등 후원 기업 110곳의 기부금과 개인 참가자들의 참가비로 23억8000여



만의 기부금이 조성됐다.

선은 “광복절 아침을 81.5km 달리기로 시작하는 것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게 전하는 저의 감사 인사”라며 “그 마음을 나눠준 모든 러너들에게도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선은 2020년부터 ‘815런’, 2021년부터 ‘3·1런’을 통해 매년 3·1절과 광복절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인 후원금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19세대에 새 보금자리를 헌정했고, 현재는 20~22번째 집을 짓고 있다. 그가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누적 65억여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